

치유로서의 예술 주창한 도전적인 미학론

김지하의 《예감에 가득 찬 숲 그늘》

영동천심월(影動天心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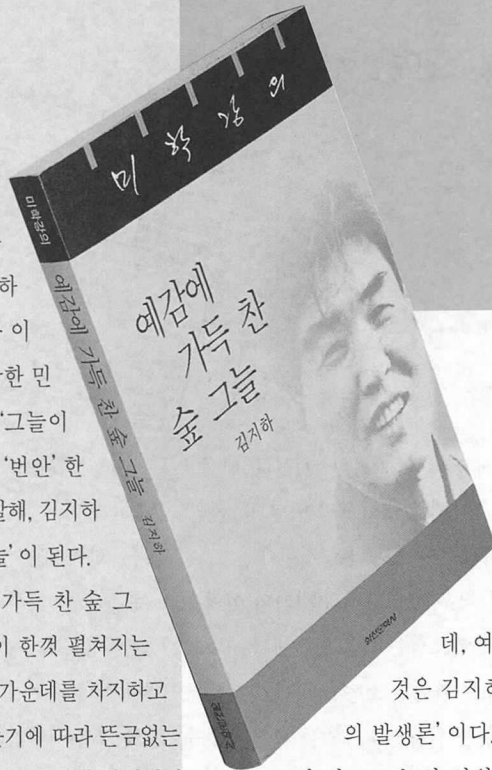
김일부의 《정역》에 나온다는 이 말이, 이즈음 김지하를 사로잡고 있다. 김지하는 이미 《밤》을 통해 드러난 해박한 민중사상에 기초해 이 말을 “그들이 우주의 중심을 바꾼다”고 ‘번안’한다. 그렇다면, 좀더 정확히 말해, 김지하를 사로잡고 있는 말은 ‘그늘’이 된다.

최근에 상재한 《예감에 가득 찬 숲 그늘》은 김지하 특유의 입담이 한껏 펼쳐지는 미학론이다. 이 미학론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의 그늘이다. 듣기에 따라 뜬금없는 이 말에 대해 김지하는, 최제우가 말한 불연기연(不然其然; 이를 다시 김지하식으로 해석하면 ‘아니다, 그렇다’다)으로 설명한다. “이 그들은 마음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순된 양극사이의 역설적 균형상태이고, 마음의 차원만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도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가 교차하면서 차원변화하는, 그 생성하는 전체가 그들의 상태”라는 것이다.

전통예술에서 건져올린 새로운 미학관

달리 표현하면, 그들이란 파라독스를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김지하는 ‘카오스모시스’를 얘기한 들뢰즈와 만난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는 현란한 서구이론에서보다는 민중예술에 대한 설명에서 쉽게 얻어진다. 그늘을 설명하기 위해 김지하가 택한 예술갈래는 판소리. “《심청가》를 보면 슬픈 대목에 도리어 아주 웃기게 이야기하죠. 그런 대목 많죠. <흥부가>에는 아주 혼하고 바로 이것을 그늘이라고 합니다. 극과 극이 역설적으로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판소리에 담겨 있는 미학이 그늘이라는 것인



얼마전 김지하가 상고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역사학계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언론의 관심을 끈 이 논쟁은, 그러나 별 소득없이 끝났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추문만을 남겼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출간된 《예감에 가득 찬 숲 그늘》은 김지하를 풍문 속에서 건져내고 있다. 상고사에 대한 견해차와 관계없이 ‘올려’로 상징되는 김지하의 사상과 미학관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김지하 지음/실천문학사/A5신/310면/10,000원

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김지하가 말하는 ‘그늘의 발생론’이다. 김지하는 한(恨)이 바로 그들의 연원이라고 주장한다.

“지치고 괴로워하는 마음, 험악한 인생역정을 살아온 피나는 삶의 경험, 삶의 애처로움, 이것이 깃들지 않으면 문학으로도 예술로도 쳐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한 자체가 예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김새’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쌓이고 쌓인 한을 삭이는 것” “눈물을 참고 억울한 것을 누르고 그러면서 정진하고 올바른 삶으로 가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의 예술”에서 얻어진다. 이쯤되면 김지하가 이미 미학의 경계를 넘어 윤리학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눈밝은 이들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늘’에 대한 이해가 이뤄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주의 중심을 바꾼다”는 대목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김지하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슬픔, 생명받은 자가 가진 슬픔, 아파하는 마음”으로서 “세계와 중생을 치료하고자 하는 참된 예술가와 신인간의 조건”인 중생한(衆生恨)을 말한다. 중생한의 개념은, 그동안 김지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의 핵심인, 올려(또는 중심음)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올려,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예술

물론 올려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려를 설명하면서 동원된 상고사(上古史) 해석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책에서도 김지하는 상고사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다. 그렇다고 상고사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올려로 상징되는 김지하의 미학관이 빛바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상고사에 대한 김지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다시 살피는 예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로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예술”로서의 올려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듯하기 때문이다.

올려를 주장하기 전까지 김지하는 ‘해체주의자’ 면모를 띠었다. 하지만 이제 김지하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후천개벽의 시대를 열 새로운 담론을 재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하나의 시론(試論)인 만큼 논리적 비약이 많지만, 예술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싶어하는 김지하의 뜨거운 마음은 심분 이해가 간다. 그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김지하는 천상 시인인 모양이다.

— 이권우 기자